

(재)동북아지식모연구소 교양총서 3

세계유산 **교창교인들**

이영문
신경숙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고창군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발행일 :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영문·신경숙

발행처 : 고창군·(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기획·편집 :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문화사업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번지

Tel 061-374-9202 / Fax 061-374-9399

www.idolmen.org

편집 디자인 : 엔터(062-236-2110)

표지사진 : 박성배

출력 : 비전프로세스

인쇄 : 세영인쇄

※ 본 책자는 '2009년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 지원금(문화재청, 고창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 세계유산과 고인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2. 이 책은 거석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고창 고인돌유적의 가치와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고인돌에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를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 고인돌의 형식-탁자식(탁방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위석식)
 - 고인돌의 구조-덧개돌(上石), 받침돌(支石), 뚜껑돌(蓋石), 모역사실, 무덤방(石室)
 - 고인돌 출토유물-간돌검(石劍), 동화살촉(石鏃), 붉은간토기(紅陶), 민무늬토기(無文土器)
4. 책자에 수록된 사진의 대부분은 필자가 촬영한 것이나 일부 도록에 실린 사진을 인용하면서 따로 명기하지 않은 것도 있다. 특히 고인돌인의 삶에 수록된 사진은 고창고인돌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생활모습과 화순 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에서 실제로 체험한 모습을 사용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5. 이 책의 편집과 발간 등의 작업은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문화사업부 신경숙 부장, 민혜영, 김숙향 연구원의 분담 하에 기획·편집이 이루어졌고, 이영문 교수님이 최종 감수하였다. 또한 고창군(고창고인돌박물관)으로부터 자료 사진 제공과 편집 교정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책머리에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고인돌은 선돌과 함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거의 전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포권에서도 가장 밀집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외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이를 무덤으로 사용한 청동기시대인의 세계관과 돌을 다루는 기술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죽림리, 상갑리 일원 약 1.8km구간에 447기가 밀집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의 크기와 형식이 다양하며 단위면적당 밀집도가 가장 높고 원형 보전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 축조과정을 알 수 있는 채석장과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통해 고인돌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입니다. 고창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생활상,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고대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청동기시대 문화교류, 즉 고인돌 루트를 상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은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오래된 유산’으로 평가되어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가 아끼고 가꾸며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이 책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용 구성은 1, 2부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제1부는 세계거석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단일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탐방코스별 안내로 설명과 함께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1코스 고인돌은 탁자식과 기반식 등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고, 2코스 고인돌에 이르면 집단의 기념물로 축조한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고인돌을 볼 수 있습니다. 3코스 고인돌은 128기의 고인돌이 최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밀집분포지를 살필 수 있고, 고인돌 덮개돌을 만들었던 채석장은 4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코스는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거나 열지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6코스 고인돌에서는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인 도산리 고인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고인돌 발굴조사와 고인돌에 관련된 설화와 전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는 고인돌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수수께끼로 풀어보고 고창 고인돌유적을 만들었던 고인돌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파고 집을 지은 움집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돌 도구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청동기를 직접 제작·사용하기도 한 고인돌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은 우리 조상들이 직접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유산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시 가보고 싶은 유적, 세계인이 찾는 문화유적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장 이영문

목 차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I. 거석문화와 한국고인돌

- 거석문화 10
- 고인돌, 선돌, 열석, 석상 등 다양한 얼굴 12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 분포 16
- 한국고인돌 18
-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21
- 【세계유산 강화고인돌유적】 24

II.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 고창고인돌, 1965년 가치를 확인하다 28
- 고창고인돌, 2000년 세계유산이 되다 30
- 【유네스코 세계유산】 32
- 【우리나라 세계유산】 34
- 생생한 선사유적, 고창 고인돌 6코스 36
 - 1코스 - 탁자식, 기반식 등 다양한 형식 38
 - 2코스 - 협동과 결속력 다지기 위한 기념물 40
 - 3코스 - 고인돌 최대 집중분포지 42
 - 4코스 - 23개소의 고인돌 채석장 44
 - 5코스 - 열지어 분포된 고인돌 46
 - 6코스 -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 48
- 【고창 고인돌 발굴조사】 50
- 【도산리 고인돌 이야기】 52
- 【북남남녀 고인돌 이야기】 53
- 【거북바위 이야기】 53

III. 세계유산, 한국 고인돌문화 수수께끼 15

- 고인돌이란 무엇일까 56
- 왜 돌로 만들었을까 58
- 누가 만들었을까 59
-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을까 60
- 고인돌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64
- 어떤 유물이 출토될까 66
- 왜 유물을 넣었을까 71
- 어떻게 만들었을까 72
- 축조규모는 어떠한을까 75
- 무덤 기능만 있었을까 76
- 지배자들만 고인돌에 묻혔을까 78
- 고인돌에서 발견된 뼈의 의미는 무엇일까 79
- 고인돌은 언제 축조되었을까 81
- 한국의 고인돌은 언제 출현했을까 82
- 고인돌은 왜 사라졌을까 83

IV. 고인돌인의 삶

- 마을 이야기 86
- 농사 이야기 88
- 농경도구 이야기 89
- 사냥 이야기 90
- 그릇 이야기 92
- 돌도구 이야기 94
- 청동기 이야기 96
- 마음들여다보기 97

V. 가볼만한 고창 문화유적

-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돌박물관 100
- 선사시대, 고인돌유적 102
- 역사시대, 문화유적 105

I

거석문화와 한국고인돌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은 선사인류가 남긴 거석문화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고창 고인돌 등 3만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거석문화와 한국고인돌

큰 돌에 기원·제의 뜻 담은 선사인류의 흔적



● 거석문화(巨石文化)는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로 구조물을 축조하여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문화를 말합니다. 거석(Megalith)이란 하나의 구조물이나 기념물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된 돌을 말하며, 거석물(Megalithic)은 인간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대상물, 즉 돌로 만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 거석문화가 돌을 이용한 구조물을 총칭한다고 할 때, 큰 돌을 이용한 고인돌이나 선돌이 이에 해당되고, 작은 돌을 이용한 돌널무덤이나 돌무지무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거석문화는 선사시대에 속한 기념물이나 거석무덤에 국한하여 통칭하고 있습니다. 돌을 이용하여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을 만든 거석문화는 태양숭배와 관련하여 보기도 하며, 주로 큰 대양(大洋)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대양을 향해하는 것과 관련된 해양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 거석기념물은 풍작과 수확물에 대해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세운 기념물, 주변 집단과의 투쟁에서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개선적(凱旋的) 기념물, 존경하는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한 거석비 등으로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의 여러 현상과 인간의 생사에 기원하는 것으로 환희와 공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거석의 건조 목적은 제의나 종교적, 사회적 목적에서 축조된 것과 무덤이나 기념물의 목적으로 조영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석은 지역에 따라 규모나 구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은 각 지역의 사회적인 전통과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축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인돌, 선돌, 열석, 석상 등 다양한 얼굴

“고인돌은 땅 위와 밑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덮은 형태로,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 고인돌

유럽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돌을 이용한 거석기념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시아 등 이외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에 고인돌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인돌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탁자모양을 한 형태는 세계적으로 나타난 공통점입니다. 거대한 덮개돌 밑에 4개 정도 받침돌이 고인기반식(바둑판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은 하나의 무덤방에 하나의 덮개돌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유럽에서는 여러 개의 받침돌을 연이어 만들고 그 위에 수 개의 덮개돌이 덮

혀 있는 터널형(복도형, 통로형) 고인돌이 특징입니다.



• 프랑스 까르낙 고인돌(터널형 고인돌)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의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 나주 남평 동사리 선돌

● 선돌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입니다. 선돌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남근(男根)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에서처럼 수십 기에서 수천 기가 열지어 분포하거나 둥근 원이 여러겹으로 둘러진 것도 있습니다.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남근신앙 외에 일출과 관련된 태양숭배, 묘 앞에 세워진 묘표석의 기능, 제단의 기능, 천문학적 기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석은 선돌이 한 줄이나 여러 줄이 평행으로 세워진 석열(石列) 형태입니다.”

● 열석

프랑스 브리타뉴지방의 열석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까르낙 열석은 작은 것이 60cm, 가장 큰 것이 6m나 되는 3,000여 개 이상의 선돌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약 4km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이런 열석은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하지나 동지와 관련된 의례행위로 보는 견해, 하루의 시간이나 계절을 추정하는 기능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 프랑스 브리타뉴 지방의 열석



• 영국의 스톤헨지 환상열석

“환상열석은 선돌을 원형으로 배열한 형태로, 한 열 또는 이중으로 배열한 것이 있습니다.”

● 환상열석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Stone Henge)로 여기에 사용된 청석은 210km 떨어진 곳에서 이동해 온 거석으로 30개 정도의 돌을 원형으로 세우고 그 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석 두 개를 세우고 그 위에 장대석을 얹어 놓은 삼석탑(三石塔) 5개를 U자형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 돌의 무게는 세워진 것이 30~40톤, 윗돌은 6~1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환상열석 주위에 길이 1.3km의 도랑과 둑이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최소 247개의 선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열석은 장례와 관련되는 특수의식 장소로 보는 견해와 하지때 일출과 관련하여 천체관측의 기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석상은 돌에 사람의 얼굴 등의 형상을 묘사하여 세워놓은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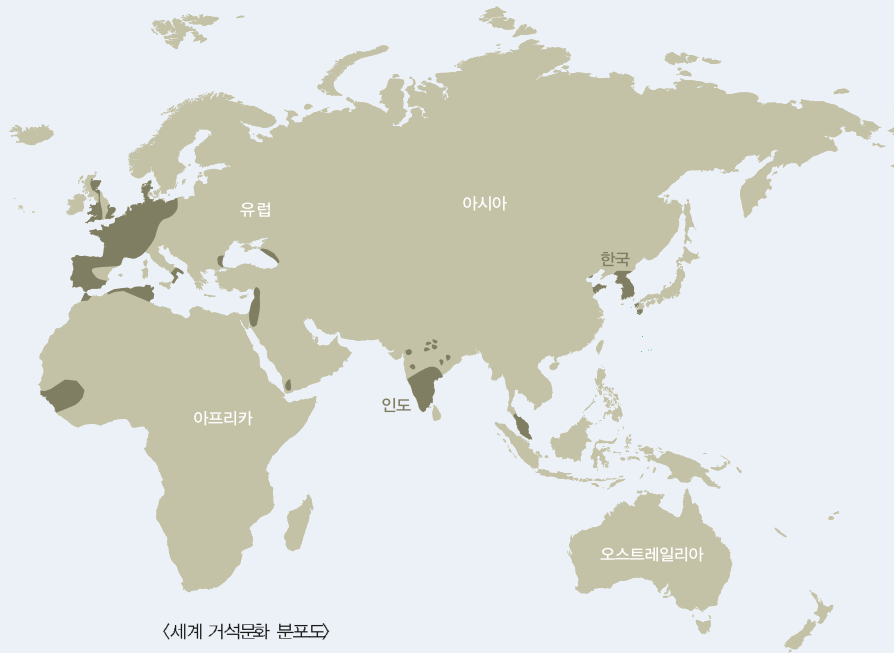
● 석상

우리나라에 흔한 벽수(장승)나 제주도에 많은 돌하루방, 묘 앞에 세워진 문·무인석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 석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지만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이스터섬의 석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섬은 가장 가까운 남미에서 3,200km나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의 해안가에 2백여 개의 석상들이 바다를 향해 세워져 있는데, 사람 얼굴을 조각한 것으로 웅장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석상들 중에는 높이가 최고 10m 이상에 무게가 82톤이나 되는 석상이 있는데, ‘이스터섬의 수수께끼’라 부르고 있습니다.

•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 분포



〈세계 거석문화 분포도〉

고인돌을 비롯한 거석문화의 분포는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유라시아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거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석문화는 모두 대서양 동안을 따라 길게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의 고인돌은 발트해 연안인 스웨덴 남부부터 덴마크, 네덜란드 북부, 독일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고인돌과 거석문화는 프랑스가 그 중심을 이루면서, 그 남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서쪽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거석문화는 코르시카와 사르디니아섬, 프랑스 남부인 프로방스지역, 이탈리아의 동남부반도, 아프리카 북부인 알제리, 지중해 동안인 시리아 등 곳곳에서 거석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연안의 고인돌은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큐슈 북서부지역, 중국 절강성과 요령성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인돌 분포 수는 절강성에 50여 기, 요령성에 700여 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인돌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큐슈지역의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어 있는데, 600여 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인돌은 우리나라와 달리 큰 것이 2~3m 정도이고, 작은 것이 1m 내외여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탁자식은 존재하지 않고 소형 덮개돌 밑에 받침돌을 꺾기반식 축소형이 많습니다.

거석문화와 한국고인돌

한국고인돌



전국적으로 3만여 기
호남지역에 2만여 기

<우리나라 고인돌 분포도>

● 우리나라에는 3만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전북 고창을 포함한 호남지방이 최대 밀집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이고 낙동강유역, 한강유역, 충남 서해안지역 등에도 밀집 분포되어 있습니다.

● 유럽의 거석문화가 5만 5천여 기라고 하는데 이는 선돌, 열석, 환상열석 등을 포함한 숫자이므로 고인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거석무덤이 많은 아일랜드가 1천5백여 기, 러시아 코카서스지역이 2천4백여 기 정도임을 감안하면, 단일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남지방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방에서 발견된 것만도 2만여 기에 이르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인돌 밀집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국 고인돌의 특징은 밀집과 군집성, 다양한 외형적 형태, 거대한 규모의 탁자식과 기반식 고인돌, 다양한 무덤방, 간돌검의 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규모의 기반식 고인돌과 간돌검의 부장은 다른지역 고인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 고창 고인돌유적



• 화순 고인돌유적



• 강화 고인돌유적

●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고인돌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축조 당시의 여러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적 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집중분포하고 있는 한국 고인돌은 세계 고인돌의 중심지로 해석되며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은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아주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오래된 유산’으로 평가되어 2000년 12월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인돌유적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보검재 양 계곡을 따라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고, 고인돌 덮개돌을 만들었던 채석장과 여러 형식의 고인돌, 특히 최근에 발견되어 주변 환경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연속의 고인돌유적입니다.”

자연속의 화순고인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은 1995년 12월 목포대학교 이영문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된 유적으로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계곡을 따라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숲속에 고인돌이 묻혀 있는 비교적 원상 그대로였고, 고인돌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주변환경은 영산강 지류인 넓은 평야가 있는 지석천과는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계곡에 고인돌이 있고, 인근 마을안 뿐만 아니라 주변 평지와 구릉에도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의 가장 큰 특징은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입니다. 덮개돌을 채석하는 장소가 고인돌 위 산기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채석장과 그 아래에는 고인돌 덮개돌의 채석 흔적과 채석하다 중단한 석재 등이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 형태의 고인돌들을 볼 수 있어 고인돌의 축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축조가 불가사의한 거대한 기반식 고인돌과 성역화된 고인돌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점, 고인돌의 여러 형태들이 한 곳에 나타난 산 교육장 등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 화순 감태바위 채석장



• 화순 마당바위 고인돌



• 화순 관정바위 고인돌군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발굴된 화순고인돌

춘양 대신리 지동(못골)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신리 고인돌은 35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전체적으로 계획된 묘역을 형성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무덤방과 깎돌로 연결된甬을 이룬 고인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덤방 안의 부장품으로는 가락바퀴(2개)와 붉은간토기, 민무늬토기편이 있으며, 무덤방 주위에서 돌화살촉, 돌끌(石鑿), 덕자귀(有段石斧), 돌검편, 갈판과 갈돌, 다량의 민무늬토기편, 붉은간토기편 등이 있습니다. 대신리 고인돌 무덤방에서 나온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放射性炭素年代)가 기원전 555년(보정연대 기원전 720~390년)과 토기 열발광(熱發光)연대측정이 기원전 770년(보정연대 기원전 1000~500년)으로 추정되어 기원전 500~800년 사이에 고인돌이 축조되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 화순 대신리 발굴지 무덤방



• 화순 고인돌유적 출토유물



• 고양이 자리에 위치한 과바위 고인돌



• 달처럼 둥근 달바위 고인돌



• 마고할매의 전설이 담긴 핑매바위 고인돌

화순고인돌에 전해오는 이야기

화순고인돌에는 고인돌에 대해 부르는 별칭과 전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과바위 전설, 관청일을 보았다고 하여 관청바위 고인돌, 달처럼 둥글다 하여 달바위 고인돌, 마당처럼 넓다고 하여 마당바위 고인돌 등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핑매바위 고인돌은 마고할매가 치마폭에 돌을 싸가지고 운주골로 가다가 치마폭이 터져서 그만 놓고 간 돌이 '핑매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핑매바위 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마고할매가 오줌을 싸서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나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을 던져서 그 구멍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고 들어가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세계유산 강화 고인돌유적】

“남한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인 강화 고인돌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부근리, 삼거리, 고천리, 오상리, 교산리 등 5개 지역에 흩어져 분포하고 평지보다는 산 능선과 산 정상에 분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산 북쪽 기슭에 127기 산재

강화 고인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 고천리, 오상리, 교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주로 고려산 북쪽 산기슭에 127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군집을 이루기보다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강 강구의 섬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고인돌 또한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강화 교산리 고인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부근리 14기, 삼거리 9기, 고천리 20기, 오상리 12기, 교산리 13기, 대산리 1기, 부근리 점골 1기 등 70기가 등록되었습니다. 강화 고인돌은 산기슭, 구릉, 평지, 산마루 등 아주 다양한 분포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산리와 고천리 고인돌은 산마루에 위치해 있고, 부근리와 삼거리는 평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부근리 탁자식 고인돌은 고려산의 북쪽기슭에 형성된 해발 20~30m 높이의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인돌의 북쪽 옆으로는 바다로 흘러가는 금곡천이 있습니다.



• 강화 부근리 고인돌

남한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부근리 고인돌

강화 지석묘로 알려진 부근리 고인돌(사적 137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인돌입니다.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강화 고인돌공원 내에 위치하며 1964년 일찍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의 덮개돌 크기는 장축 길이가 640cm, 너비가 523cm, 두께가 112cm이며, 지상에서의 전체 높이는 245cm입니다. 대형 판석형 덮개돌 중앙부 아래에는 2개의 대형 받침돌이 고여져 있고 현재 좌우의 받침돌만 남아 있어 무덤방 내부가 마치 긴 통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받침돌은 동쪽으로 30° 정도 기울어져 있고 덮개돌은 거의 지면에서 수평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덮개돌의 암석은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이고 좌측의 받침돌은 운모편암, 우측의 받침돌은 회강암질 편마암입니다.

이 고인돌은 대지상에 거대한 덮개돌이 받침돌에 의해 웅장한 모습을 띤 것이라든지 주위에서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축조집단들을 상징하는 기념물이거나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강화 부근리 고인돌

【세계유산 강화 고인돌유적】

정비 복원된 오상리 고인돌

강화 내가면에 있는 오상리 고인돌은 발굴 후 12기가 정비 복원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군은 고려산 서쪽 낙조봉의 끝자락 해발 76m 지점의 조그만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크기가 가장 크고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고인돌은 지방기념물 46호로 지정된 '내가지석묘'입니다. 고인돌들은 받침돌의 높이가 50cm 안팎으로 덮개돌의 크기에 비하여 고인돌의 전체 높이가 비교적 낮은 모습이며 받침돌과 막음돌로 4벽을 막은 형태입니다. 2000년 선문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돌검, 돌화살촉, 돌칼, 돌도끼, 갈판 등 다양한 석기류와 붉은간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 강화 오상리 고인돌

산 정상에 위치한 고천리 고인돌

고천리 고인돌군은 고려산 정상에서 적석사 낙조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서쪽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300~350m 지점으로 현재까지 고인돌의 입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3개군 20여 기의 고인돌이 나뉘어져 군집되어 있고 대부분 높이가 낮은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산 정상부나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덮개돌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거나 낙엽과 흙으로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화 고천리 고인돌

Ⅱ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고창 고인돌은 1.8km의 좁은 범위 안에 447기가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고창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조밀한 고인돌 분포 지역으로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고창고인돌 1965년, 가치를 확인하다

표. 전북지역 고인돌 분포현황

구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계
군집수	205	11	3	27	8	17	28	14	4	24	40	20	22	423
분포수	1,665	26	11	84	20	80	118	79	9	143	150	82	165	2,632
비율	63.3%	1.0%	0.4%	3.2%	0.8%	3.0%	4.5%	3.0%	0.3%	5.4%	5.7%	3.1%	6.3%	100%

(2007, 고창 죽림리 재해 고인돌 발굴조사 보고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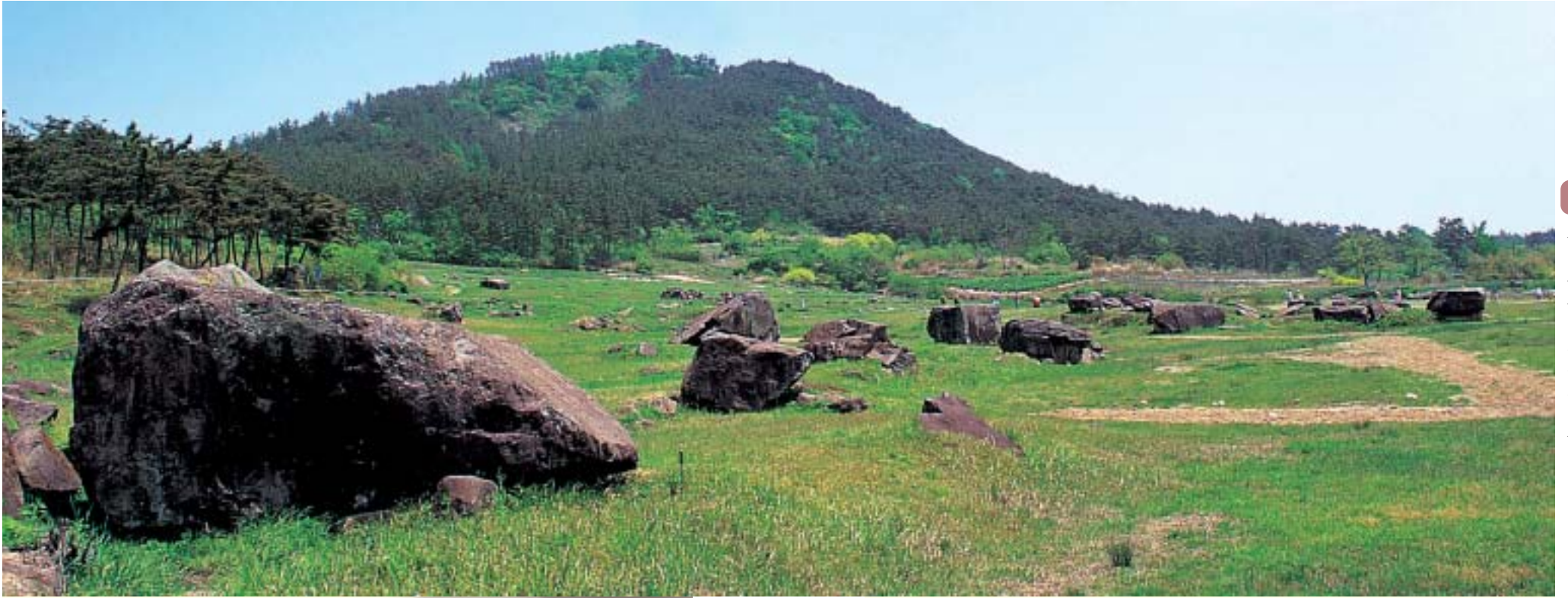
●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우리나라에 대체로 3만여 기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 분포한 고인돌은 그동안 꾸준한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져 약 2,6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창지역은 전북고인돌의 63% 이상인 1,665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 단일 구역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밀집 분포된 사실로 유명합니다.

● 고창지역 고인돌은 2003년에 205개 군집에 1,665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¹⁾ 그 이후 2005년 문화유적분포지도²⁾에서는 1,327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으며, 2009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³⁾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고인돌유적을 제외한 174개 군집에 1,124기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185개 군집에 1,600여 기 이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고창지역 고인돌 발굴조사는 1965년 국립박물관에 의해서 삼갑리 고인돌 3기가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1983년에는 고창 아산댐 공사로 인해 용계리와 운곡리에 걸쳐 22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고, 현재 원광대학교박물관 정원에 이전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목적으로 죽림리 2지구 3군의 16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고, 1999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죽림리와 예지리 고인돌이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루사에 의해 죽림리 2419호 고인돌은 완전히 도괴 되었고, 2433호 고인돌은 유수에 의해 도괴의 우려가 있어 재해고인돌로 명명하고 2004년 원광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구간인 부곡리에서 20여 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된 바 있습니다.

1) 김산기, 2003, 「전북지방 지석묘의 현황과 고창 지석묘의 특징」 『지석묘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한국상고사학회.
 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고창군』, 고창군
 3)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9, 『고창군의 지석묘』, 고창군
 방민아외, 2009, 「고창군 지석묘 분포현황」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2008·2009』 호남고고학회



•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

고창고인돌 2000년, 세계유산이 되다

● 고창 고인돌은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지어 분포합니다. 성틀봉과 증봉의 남사면에 산의 등고선 방향으로 위치하고 바로 앞은 고창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 죽림리 일대의 442기의 고인돌과 도산리 고인돌 5기를 포함하여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의 방대함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식, 이른바 탁

자식과 변형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등 각종 형식이 혼재되어 있어 고인돌의 발생과 전개 및 그 성격면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고창 고인돌유적은 단일 구역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균집을 이루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분포하며, 고인돌 축조과정을 알 수 있는 채석장의 존재 등 동북아시아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기준 제3항(독특하거나 아주 오래된 것)을 적용,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누어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 건수는 2009년 10월 현재 148개국에 890건으로, 이 가운데 문화유산 689건(전체유산의 77%), 자연유산 176건(전체유산의 20%), 복합유산 25건(전체유산의 3%)이며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은 3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문화유산**: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 성곽, 탑 등과 같이 부동산문화재(不動産文化財)가 대상이 됩니다. 이집트의 누비아 유적지,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유적, 인더스문명의 발상지인 모헨조다로, 중국의 만리장성, 선사시대 고대 유적지인 알타미르 동굴유적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1995),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조선왕릉(2009) 등 총 8건이 있습니다.

▶ **자연유산**: 생물학적인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인 것을 포함한 것으로 에베레스트산과 미국의 그랜드 캐논, 아프리카의 광활한 야생공원, 차알스 다이윈의 진화론을 떠올린 아쿠아도르의 갈라파고스 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이 있습니다.

▶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충족하는 문화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의 아토스산과 중국의 태산(泰山), 페루의 마추피추 역사보호지구 등이 해당됩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무형문화유산이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결실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식, 습관, 공예 등에 대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77개국 166건(2009년 11월 현재)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는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로 총 8건이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은 각 나라의 도서관, 문서고 등에 보관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값진 소장문서로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세계기록유산에는 85개국의 218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실록(1997), 훈민정음 해례본(1997), 불조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등 총 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및 효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그 가치의 탁월성 및 해당국가의 관리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술자문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아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등재 기준	등재 사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이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이유타야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측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해)의 사용을 예측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데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상징로그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에 만든 상징로그에서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을 나타내고 외곽의 둥근 원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사각형과 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문화와 자연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제21차 회의(1997, 나폴리)에서는 수원화성과 창덕궁이, 2000년 호주 케언즈에서는 경주 역사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 2009년 6월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이 추가되어 총 8곳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7년 7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에서는 2004년 고구려 고분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009년 현재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수는 890건으로 증가되었으며 한국의 삼년산성, 공주 무령왕릉, 강진의 도요지, 안동 하회마을 등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1995)** 통일신라시대 불교예술의 정수인 석굴암과 불교 교리가 사찰건축물을 통해 잘 표현된 독특한 건축미로 꼽히는 불국사는 등재기준 제1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묘(1995)**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는 종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조물로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제왕을 기리는 유교적인 사당의 표본으로 인정하여 등재기준 제4항을 적용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1995)** 해인사 장경판전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15세기경의 건축물로 보존과학의 예지를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창덕궁(1997)** 조선왕조의 이궁(離宮)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궁전건축사에 있어서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인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원화성(1997)**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인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신라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산성지구 등 5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왕릉과 성곽, 이궁 등 신라 왕실과 정치,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그 유례가 드문 유적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고인돌은 선사시대 무덤의 한 종류로서 거석기념물의 하나이며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그 중에서도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은 밀집도와 다양한 형식, 채석장 등으로 우리나라 고인돌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왕릉(2009)** 조선왕릉(朝鮮王陵)은 519년 동안의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무덤입니다. 역대 왕조의 왕릉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왕과 비들의 무덤이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왕실의 장례와 제례를 엿볼 수 있으며, 국조오례의와 같은 상세한 기록까지 후대에 전해져 조선 시대의 왕실 문화를 잘 조명할 수 있는 문화재로 평가되었습니다.

생생한 선사유적 고창고인돌 6코스



● 고인돌은 고창 죽림리와 상감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성틀봉과 중봉의 남쪽 기슭을 따라 균을 이루며 분포하고 등고선의 방향으로 2~3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유적 앞을 흐르고 있는 고창천의 방향과 같습니다.

● 고창 고인돌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1.8km의 좁은 범위 안에 447기가 밀집되어 있는 점입니다. 1코스에 53기, 2코스에 41기, 3코스에 128기, 5코스에 220기, 6코스에 5기 등 좁은 범위 안에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조밀한 고인돌 분포 지역으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로 탁자식과 기반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한 곳에 분포되어 있는 점입니다. 특히 도산리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이나 요령지방처럼 처마가 넓고 덮개돌이 얇은 형식이며, 1코스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에 노출된 무덤방이 낮고 덮개돌이 두터워져 전형적인 탁자식에서 탈피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고창 고인돌의 대부분은 받침돌을 고인 기반식 고인돌로 덮개돌이 입체화되거나 거석화되는 양상을 보여 줍니다. 또한 기둥모양의 받침돌을 한 기반식 고인돌은 덮개돌이 웅장하고 인위적인 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창 고인돌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 고창 고인돌유적에서는 민무늬토기편이 발견되었고 지표상에서 간돌검편이 수습된 바 있으나 대표적인 고인돌 부장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인돌 발굴조사가 더 이루어지면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재해고인돌 옆 덮개돌이 없는 무덤방에서는 원형점토 대토기가 부장된 예가 있습니다.

● 고창 고인돌유적은 한 지역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어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과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 1코스 고인돌 전경

1코스

탁자식 기반식 등 다양한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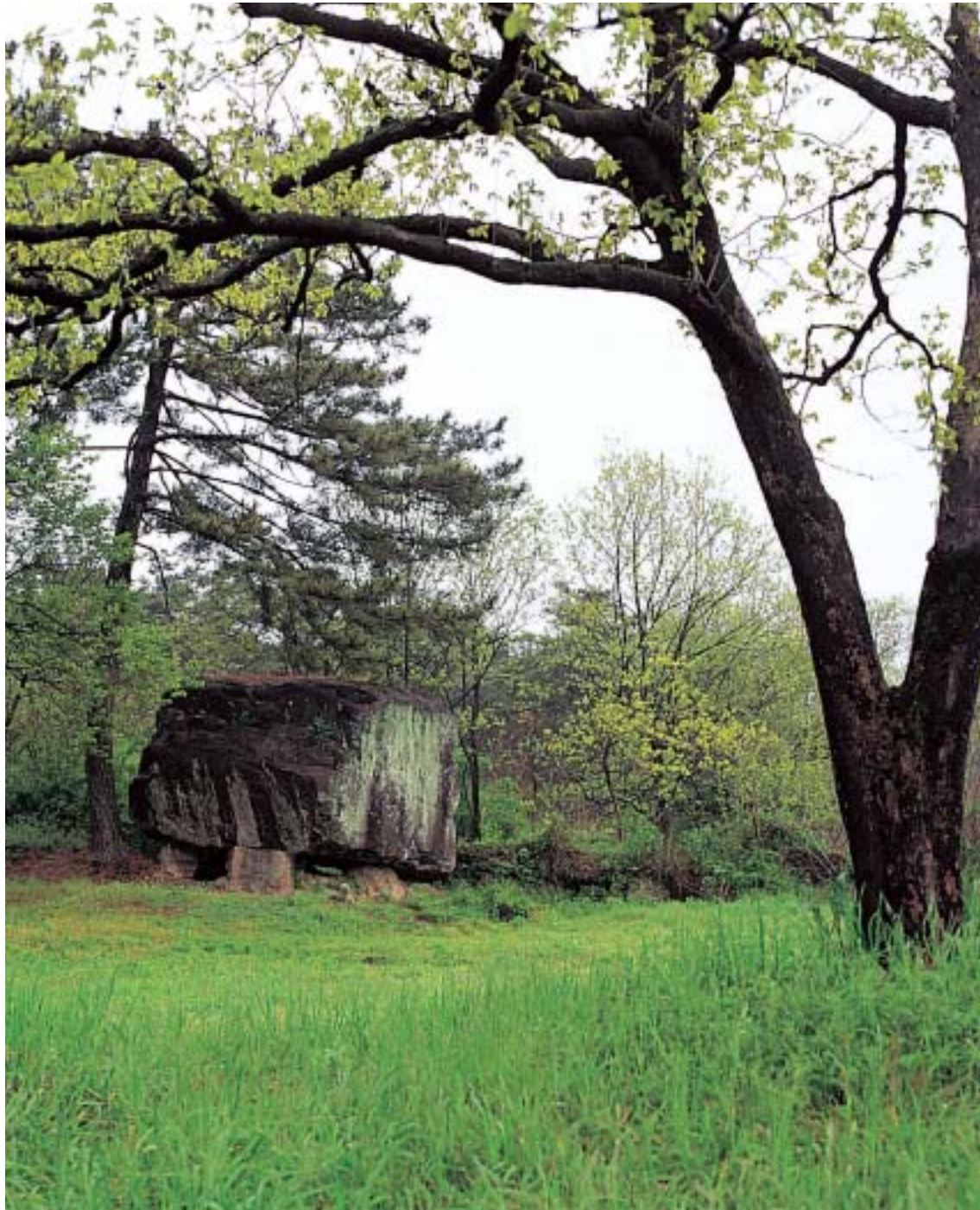
변형된 탁자식, 전형적인 기반식 등 53기 분포

1코스 고인돌은 중봉의 남쪽 사면부에 위치하며 탁자식 1기, 기반식 12기, 개석식 28기, 형식을 알 수 없는 12기 등 총 53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509호에서 보여주는 탁자식 고인돌은 변형된 탁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덮개돌의 길이 340cm, 높이 150cm로 외형적인 모습은 기반식(바둑판식) 고인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부구조는 길이 220cm 높이 70cm의 판석 2개가 80cm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괴어있는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2513호 고인돌은 5개의 받침돌이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기반식 고인돌입니다. 덮개돌을 받치거나 고이고 있는 받침돌은 덮개돌을 직접 받치고 있으면서 하부구조인 무덤방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덮개돌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덮개돌을 얹은 개석식 고인돌도 탁자식, 기반식 고인돌과 함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코스는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등 다양한 고인돌의 형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입니다.



• 1코스 탁자식 고인돌



• 2코스 고인돌 전경

2코스

협동과 결속력 다지기 위한 기념물



• 2코스 변형 탁자식 고인돌

120~150톤 무게 거대 고인돌에 경외감

현재 이주가 완료된 매산마을 옆으로 동서 약 276m에 걸쳐 41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반식 15기, 개석식 11기, 변형탁자식 1기, 형식을 알 수 없는 14기의 고인돌이 있으며, 탁자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반식과 탁자식의 중간단계라고 생각되는 고인돌이 존재합니다.

기반식 고인돌 중 120~150톤 무게를 가진 거대한 2406호 고인돌은 고인돌 묘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제단이나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축조되었습니다.

고인돌을 축조하던 사회에서는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했는데, 거대한 덮개돌을 가진 고인돌은 일정한 지역내에서 거족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또는 묘역 조성 집단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3코스 고인돌군 전경

3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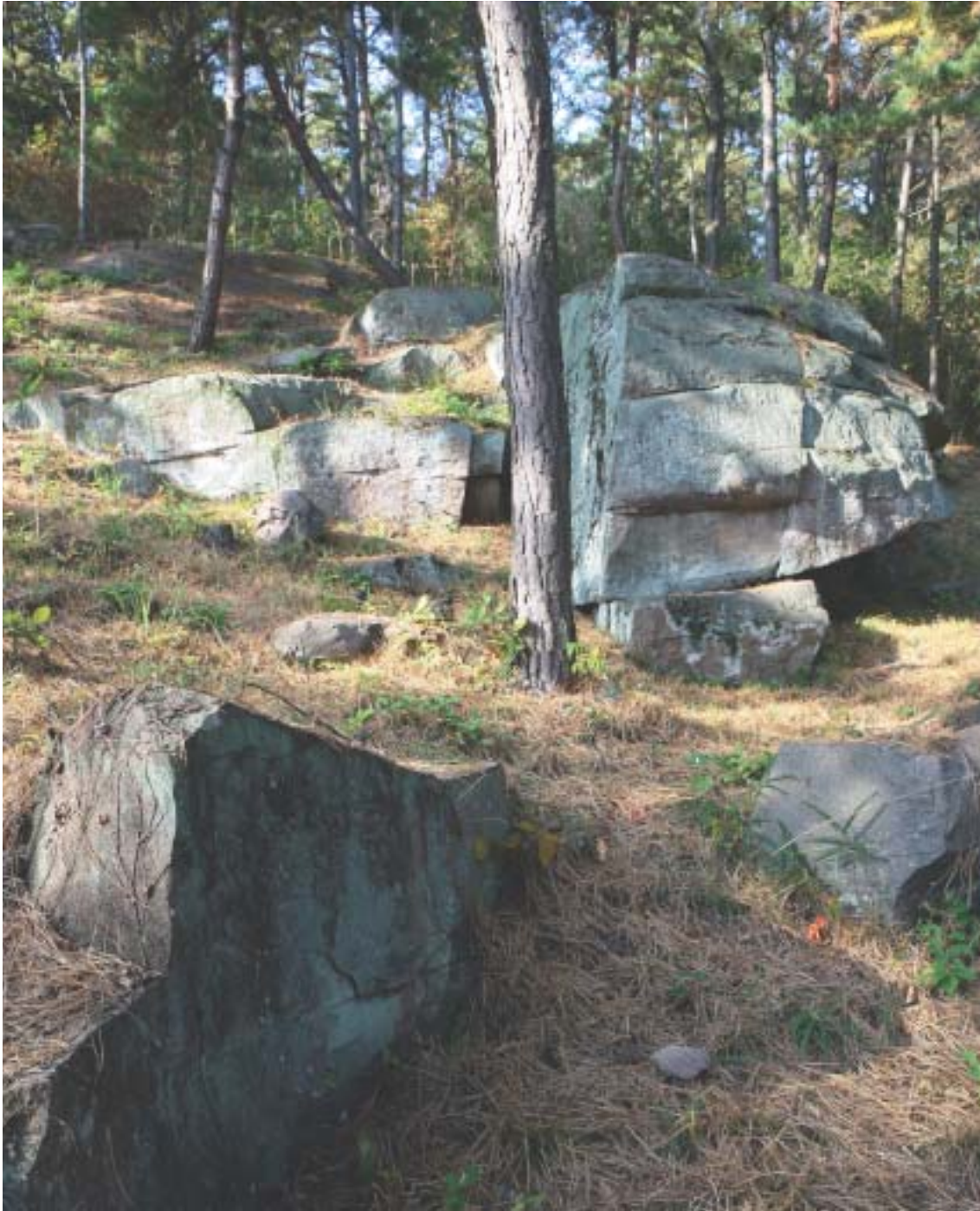
고인돌 최대 집중분포지



• 3코스 발굴 고인돌(1991년)

매장부 원형 잘 보존되어 가치 높아

3코스 고인돌은 성틀봉과 중봉 사이의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곡간지로 고창 고인돌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탁자식 20기와 기반식 17기, 개석식 50기, 형식을 알 수 없는 41기의 고인돌 등 총 128기의 고인돌이 존재하나 덮개돌의 일부가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형성된 것을 볼 때 고인돌의 원래 기수는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곡리로 넘어가는 2318호에서 2333호에 이르는 16기는 고인돌의 형식 변천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적인 목적으로 1991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서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탁자식으로 보이는 변형된 탁자식(지상 석곽식)과 덮개돌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보조받침돌로 괴는 형식, 덮개돌을 받침돌로만 고이는 기반식 등 고인돌의 여러 형식이 조사되었습니다.



• 고인돌 채석장 전경 모습

4코스 23개소의 고인돌 채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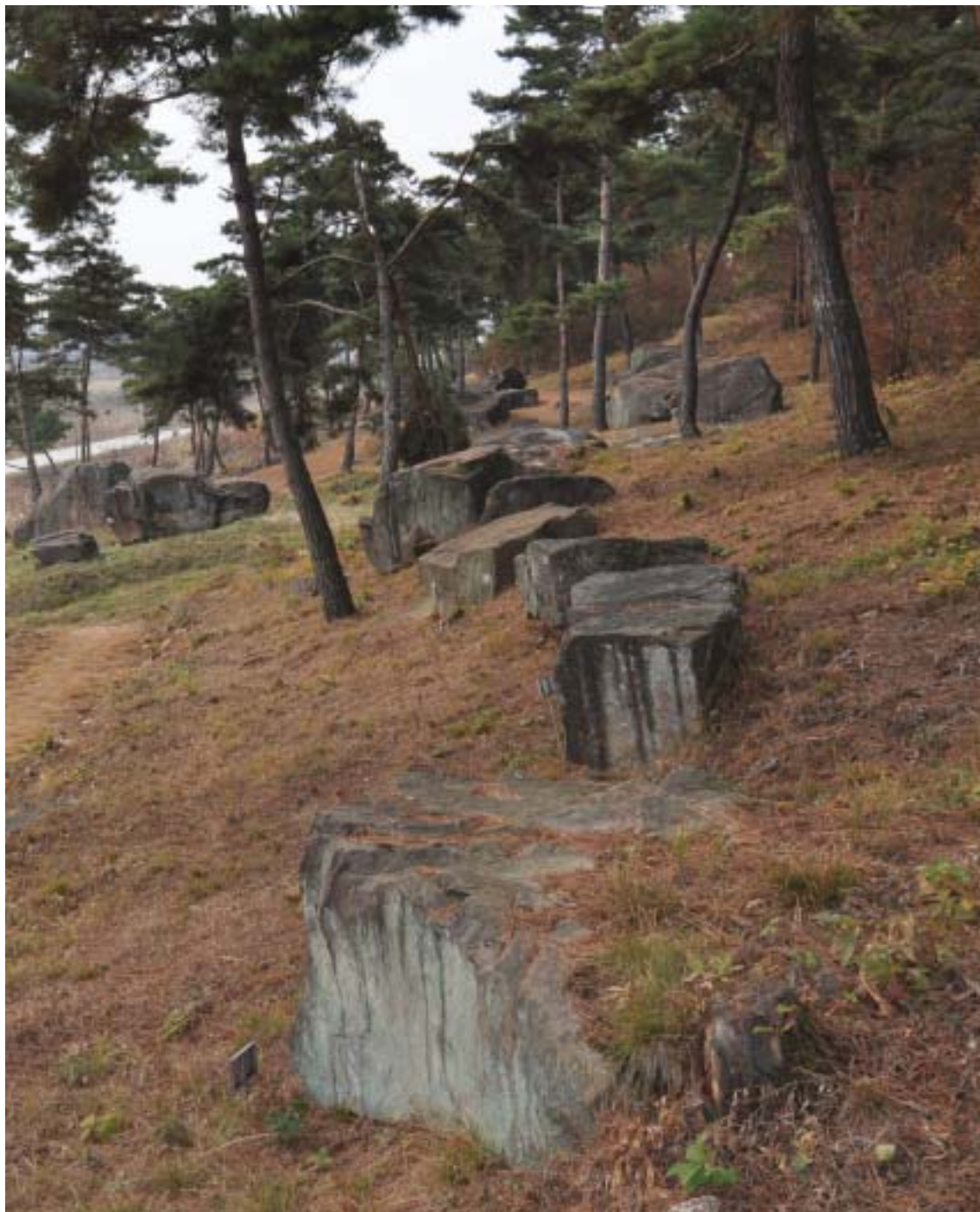
• K지점 채석장 모습

고인돌 축조과정 살필수 있는 유적

고창 고인돌 덮개돌을 만들었던 채석장은 고인돌군이 자리하고 있는 뒷산인 성틀봉과 중봉 주변 23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상부의 성틀봉 주변에서 15개소, 중봉 주변에서 8개소가 조사되었고, 주로 7~8부 능선지점에 군집을 이루며 넓은 범위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인돌 447기의 암석의 주성분은 테사이트질응회암 및 안산반암으로 채석장의 암석성분과 같습니다.

K지점의 채석장은 3코스 뒤쪽의 '고인돌 채석장 가는길'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 해발 80~85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석은 40m×20m 범위에 중대형의 고인돌 덮개돌로 이용될 만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원석에서 떨어져 나간 흔적은 주로 앞면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원석의 절리면을 이용하여 V자형의 홈을 절리면에 길게 만들어 썰기를 박고 위쪽을 때려서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멍을 뚫어 썰기박은 흔적이 남아 있고 원석에서 떨어져 밑으로 굴러 내린 암석들이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고창 고인돌유적 채석장은 원석의 절리면의 틈을 이용하여 썰기를 박아 떼어내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5코스 열지은 고인돌 모습

5코스 열지어 분포된 고인돌



• 5코스 고인돌

나란히 자리잡은 2m 내외 소형고인돌 다수

5코스 고인돌은 성뜰봉의 남쪽사면에 고창천의 흐름과 나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탁자식 25기와 기반식 40기, 개석식 130기, 형식을 알 수 없는 고인돌 25기 등 총 220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갑리와 죽림리에 걸쳐 이어지는 이곳에는 5개의 작은 고인돌 군집들로 나눌 수 있고, 크기 2m 내외의 소형 고인돌과 열지은 고인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인돌이 떼를 지어 있고 대부분 열을 지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 의 공동묘역으로 보기도 하고 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 도산리 고인돌 전경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



• 장독대 고인돌로 알려진 도산리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등 5기, 마을 안 민가에 위치

도산리 고인돌은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1.0km 떨어진 도산마을의 집안에 있는 고인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고도 43m 구릉상에 탁자식 고인돌 1기와 기반식 고인돌 2기, 개석식 고인돌 2기 등 총 5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죽림리 고인돌군과 함께 사적 제 3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넓은 판석으로 축조한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으로, 판석 4매 혹은 6매 이내로 짜맞춘 무덤방 위에 납작한 덮개돌이 올려진 것으로 마치 책상처럼 생겨서 탁자식이라 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인 도산리 고인돌은 장독대 고인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 350×폭 310×두께 38cm의 고인돌 덮개돌과 받침돌 2매를 사용하였는데 규모는 314×164×30cm와 307×168×26cm입니다. 덮개돌 측면에는 옮길때 줄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자국이 있고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는 길이 20cm 내외의 쐈김돌을 사용하였으며 빈틈사이에는 흙이 메워져 있습니다.

【고창고인돌 발굴조사】

고인돌유적내에 발굴조사는 3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1965년 국립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3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 되었고, 1991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3코스에 있는 16기의 고인돌과 2004년 재해고인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발굴조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갑리 고인돌은 성틀봉의 남쪽 사면부에 입지하고 등고선과 고창천의 방향에 따라 2~3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고인돌은 그 중에서 3기로, A호 고인돌은 하부에 무덤방을 간단히 만든 후 그 위에 직접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놓은 형식이고, B호는 덮개돌 밑에 4개의 받침돌을 고인 형태로 덮개돌은 크기가 길이 210×폭 180×두께 65cm이며, 그 아래의 중앙부에서 길이 150×폭 40×깊이 36cm 크기의 무덤방이 확인되었습니다. C호는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받침돌을 얹은 기반식 고인돌이며 무덤 주위에는 적석시설로 보강하였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한 점도 없지만 인근 구릉의 지표에서 간돌검(磨製石劍)의 손잡이 파편 한 점이 채집되어 이들 고인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991년 발굴조사

3코스 고인돌 발굴조사에서는 고인돌 하부구조와 형식변천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적인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모두 16기의 발굴조사로 변형된 탁자식과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무덤방의 벽석만으로 덮개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지석을 권 것(2428호), 지상에 여러 매의 보조판석을 세운 것(233호 등 4기), 지상에 여러 매의 보조판석을 세우고 보조지석을 권 것(2328호 등 3기)등 고인돌 무덤방의 여러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991년 발굴 조사된 고인돌(3코스)



• 발굴조사된 재해고인돌(2코스)

2004년 발굴조사

2003년 태풍 루사에 의해 죽림리 고인돌 2419호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2433호는 유수에 의해 도괴의 우려가 있어 재해 고인돌로 명명하고, 2004년 원광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도괴된 2419호와 2433호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무덤방 1기 등 총 3기가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2419호는 4개의 받침돌을 기본으로 하고 매장주체부나 부석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33호 고인돌은 단독으로 위치하며 전체적인 모습이 마치 도약하려는 웅크린 두꺼비와 같은 형상으로

생각되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축조는 땅을 파고 받침돌을 세운 후 주위에 작은 돌로 보강하고 전반적으로 성토한 후 덮개돌을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물은 받침돌 사이에서 민무늬토기편과 붉은간토기편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433호 주변에서 고인돌 하부구조로 생각되는 무덤방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원형의 점토대토기가 부장되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고창지방에서는 처음 출토된 예이며, 이 지역의 고인돌이 전남지방과 더불어 점토대토기문화까지 축조되고 있음을 밝혀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발편 무덤방 출토유물 원형점토대토기(2코스)

【도산리 고인돌 이야기】



• 망북단 전설을 간직한 도산리 고인돌

도산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로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망북단, 망북대(望北臺) 또는 망곡단(望谷壇)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있는 집터는 송대장 집터라 하며, 송대장은 이름이 기상(基想), 호는 모은(牟隱)으로 이곳 지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북상하다가 중국과 굴욕적으로 화의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곳으로 되돌아와 평생토록 망북통배(望北痛拜)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 사실은 은진송씨(恩津宋氏) 모은공파(牟隱公派)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남남녀(北男南女) 고인돌 이야기】



• 1코스 탁자식 고인돌

고창고인돌 1코스에는 남녀간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고인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사는 군장의 아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부족 몇 명과 함께 배를 타고 고창의 삼원만을 통해서 이곳 매산부락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매산부락 군장 딸의 미모에 이끌려 군장의 딸과 사귀게 되고 결혼하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장의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 남쪽 군장의 아버지는 북쪽의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을 세우고, 남쪽의 대표적인 기반식 고인돌의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돌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는 북남 남녀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매산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북바위 이야기】



• 고창 성내면 낙산마을 고인돌



• 자오선 맞추기

고창 성내면 낙산마을은 300여 년 이상 윤도*를 만들어 오고 있는 윤도장 보유자 김중대 기능장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낙산마을 뒷산인 제성산에는 거북바위라 하는 고인돌이 있는데 동서로 가로놓여 있고 등에는 7개의

구멍이 파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완성된 윤도를 놓으면 남북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만든 윤도는 그곳에 놓고 검사해 보면 잘 맞지 않지만 낙산마을에서 만든 윤도는 정확히 맞다고 합니다.

* 김중대 기능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입니다.

* 윤도(輪道)는 지남성(指南性)이 있는 지침을 활용하여 지관들이 음택과 양택 등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나침반입니다.

Ⅲ

세계유산
한국 고인돌문화 수수께끼 15



우리나라는 세계고인돌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고인돌 축조와 발굴 유물등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치체계, 생활양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두꺼비 바우(니주 만봉리)



• 배 바우(강진 수암리)



• 원도 청산도 고인돌

고인돌은 지석묘의 우리말



• 화순 벽송리 고인돌

모양에 따라 배바우, 거북바우, 두꺼비바우

고인돌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을 묻는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은 선사시대 무덤이 대부분입니다. 납작한 판석이나 괴석형 덩이돌 밑에 돌을 고여 지상에 드러나 있는, 즉 고여 있는 돌이란 뜻인 지석묘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고인돌을 자연석이 땅에 묻혀있다고 하여 독배기, 바우배기, 독바우로, 받침돌이 고이고 있는 기반석 고인돌의 경우 권바우, 암닭바우로, 덮개돌의 형상을 따라 배바우, 거북바우, 두꺼비바우, 개구리바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신앙과 연관시켜 고인돌의 배치상에서 칠성바우, 옛날 장군이 돌을 옮기다가 말았다는 장군바우 등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을 이름도 고인돌과 관련하여 주암(舟岩)(배바위), 구암(龜岩)(귀암, 거북바위), 칠암(七岩)(칠성바위), 지석(支石)(권돌, 고인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2. 왜 돌로 만들었을까

돌에 담긴 불멸성과 견고함 숭배

변하지 않은 돌에 영원 표현, 영속성 기원하는 암각화 돌검

바위나 돌은 우리에게 견고함과 불멸성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자연환경에 의존하면서 살아간 선사시대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환경과 기후 변화에 의해 그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잔존하고 있는 거목(巨木)이나 거석(巨石)에 대한 숭배는 자연 발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이용한 고인돌은 죽은 사람의 혼령의 상징적인 안식처로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끼칠지도 모를 위해(危害)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는 고인들의 부장품으로 간돌검이나 돌화살촉 등 무기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승에서 누리던 생활을 저승에서도 그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 삶의 영속성 기원(여수 오림동 암각화)



• 동제의 대상이 된 선돌

03. 누가 만들었을까

공동체 사회의 의례 행위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는 공동체작업

고인돌을 축조하려면 거대한 바위를 채석, 운반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 톤에서 수십 톤에 이르는 거석을 채석해서 운반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친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는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벼농사(稻作)를 위시한 농경과 일정



• 고인돌 이동 모습(고창고인돌박물관)



• 고인돌 이동 모습(화순 고인돌 선사체험)

한 영역권이 형성된 정착생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집단의 의례 행위로서 축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인돌을 축조하던 사회에서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농업공동체 같은 공동체사회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두레와 같은 협동조직이 형성된 공동체 사회를 배경으로 한 혈연집단간의 거족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자기 조상의 무덤 뿐만 아니라 집단의 기념물인 고인돌이 건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행위는 공동체사회의 힘의 결집과 협동 단결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04.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을까

독자적 문화, 다양한 모양

01. 탁자식 고인돌(卓子式 支石墓)

책상처럼 생긴 납작한 덮개돌

넓은 판석으로 축조한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으로, 판석 4매 혹은 6매 이내로 짜맞춘 무덤방 위에 납작한 덮개돌이 올려진 것입니다. 마치 책상처럼 생겨서 탁자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강 이북에서 중국 요령지방에 집중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식(北方式)으로 불리워진 것입니다. 탁자식 중 대형은 주로 제단이나 기념물로 축조된 것입니다.

탁자식 중 길이가 8m 이상이고 폭이 5m 이상, 높이 2m 이상인 초대형급의 고인돌은 요동반도와 한국 대동강유역에서만 나타나고 구릉이나 산중턱에 1기씩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남쪽의 탁자식 고인돌은 대개 3~4m 크기의 덮개돌과 그 밑의 무덤방 높이도 1m 이내로 고인돌의 규모가 작고 무덤방 폭도 좁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탁자식 고인돌의 남방한계선은 경남 거창과 전남 영암, 강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안 성동리 고인돌



• 중국 해성 석목성 고인돌

02. 기반식 고인돌(基盤式 支石墓)

바둑판 모양의 커다란 덮개돌

기반식 고인돌은 판돌을 세우거나 깬 돌, 자연석으로 쌓은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주위에 받침돌을 4개에서 8개 정도 놓고 위에 커다란 덮개돌로 덮어 마치 바둑판처럼 생긴 형태입니다. 외형상 지표면에서 드러져 있어 웅장하게 보이는 기반식 고인돌은 덮개돌이 거대하고 괴석상을 한 대형들은 호남과 영남지방에서만 보이는 형태들로 뚜렷한 무덤방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형식으로 남방식(南方式)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규모

가 큰 기반식 고인돌은 산기슭이나 구릉상, 계곡 끝 평지에 1기씩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가운데에 있거나 어느 정도 떨어진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고인돌의 덮개돌은 대개 길이 3~6m, 두께 2~4m 정도의 달걀처럼 생긴 둥그스런 형태와 각 면들이 반듯하게 잘려진 직육면체 형태의 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곡성 금반리 고인돌



• 영평 평금리 고인돌

03. 개석식 고인돌(蓋石式 支石墓)

무덤방 위에 바로 덮은 뚜껑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을 말합니다. 받침돌이 없이 바로 무덤방을 덮은 것에서 개석식을 무지석식(無支石式), 뚜껑식, 대석개묘 등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거의 돌로 만든 무덤방이 확인되고 있어 원래 무덤의 기능으로 축조된 것입니다. 요동반도, 한반도, 일본 큐슈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고인돌 형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무덤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덮개돌의 형태에 있어서도 판석형, 직육면체인 장방형, 볼록렌즈 형태의 장타원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북쪽지역에서는 덮개돌 두께가 얇으나 남쪽지역에서는 대체로 두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대부분 이 형태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 광양 지곡리 고인돌



• 함평 신곡 고인돌



• 보성 죽산리 하죽 고인돌(쌍주박물관 이전 복원)

04. 위석식 고인돌(圍石式 支石墓)

덮개돌 주위를 따라 노출된 무덤방

제주식이라고 부르는 위석식 고인돌은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매의 판석이 덮개돌의 가장자리를 따라 돌려 세워진 형태입니다. 지상에 드러난 판석들의 수가 6매 이상으로 덮개돌의 평면 형태와 유사하게 무덤방 형태를 하고 있어 대개 타원형이나 방형에 가까운 무덤방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이는 장방형이 기본 형태인 다른 지상 무덤방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주 용담동 6호 고인돌로 판석 11매가 덮개돌을 따라 타원형상으로 돌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만 보이는 형태이며 중국 절강성지역에서도 유사한 무덤방 구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제주 용담동 6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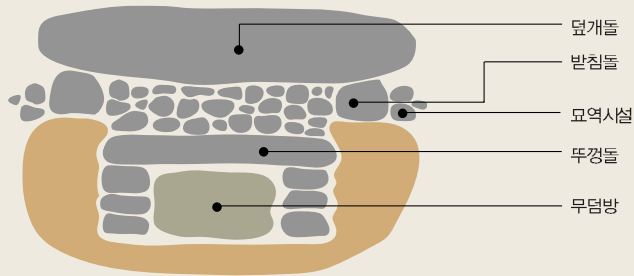
• 제주 공항앞 고인돌



• 제주 용담동 1호 고인돌

05. 고인돌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지역·문화에 따라 상이한 구조



• 곡성류계소 고인돌

01. 덮개돌

무덤방 위에 올려진 거대한 돌

고인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무덤방 위에 올려진 거대한 돌입니다. 이는 지상에 드러나 있거나 받침돌에 의해 들려져 있으며 개석(蓋石), 탕석(撐石), 상석(上石)이라고도 합니다.



• 창녕 유리 고인돌

02. 받침돌

덮개돌을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

덮개돌을 받치거나 고이고 있어 지석 또는 꺾돌이라고도 합니다. 탁자식 고인돌에서는 넓은 판석에 의해 덮개돌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덤방을 이룬 판석 자체를 말하고, 기반식 고인돌에서는 기둥모양이나 둥글거나 각진 돌로 고이고 있는 돌을 말합니다. 덮개돌을 직접 받치고 있으면서 하부구조인 무덤방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덮개돌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는 돌을 말합니다. 덮개돌을 직접 받치고 있으면서 하부구조인 무덤방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덮개돌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화순 다지리 월정 고인돌

03. 묘역사설

무덤방 주위에 깔려진 돌

덮개돌 아래 무덤방 주위에 돌을 깔거나 쌓아 구획한 것을 말합니다. 무덤방 주위를 보강해 주고, 덮개돌의 무게를 무덤방에 직접 받지 않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과 넓은 묘역이나 묘역 가장 자리를 구획하여 묘역 표시 기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갠돌이나 강돌을 쌓아서 만든 것과 납작한 판석이나 자연석을 한 겹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돌무지, 적석(積石)이라 하며, 뒤의 것은 간돌, 포석(鋪石), 부석(敷石)이라고 부릅니다. 무덤방 주위에 돌을 여러 겹으로 단을 쌓은 것을 석축형이라 하고 매장주체부를 구를 파서 구획한 것은 주구형이라 합니다.



• 보성 죽산리 하죽 고인돌

04. 뚜껑돌

무덤방을 덮고 있는 돌

무덤방을 덮고 있는 돌로, 주검을 보호하면서 덮개돌의 무게로부터 무덤방의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뚜껑돌은 판석 1매인 것과 수 매의 판석으로 덮은 것이 있으며, 보통 한 겹이지만 여러 겹으로 포개어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성 죽산리 하죽 고인돌

05. 무덤방

주검(사신)이 묻히는 곳

고인돌의 하부구조로서 돌로 만들어진 무덤방입니다. 돌을 세우거나 쌓아 축조한 무덤방의 총칭으로 대부분 평면이 장방형으로 수혈식입니다. 돌널(石棺), 돌덧널(石槨), 돌돌림(圍石) 등으로 구분합니다.

06. 어떤 유물이 출토될까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부장용 유물

죽은 사람의 성별, 신분, 머리방향 추정 가능

무덤방 안에 넣은 부장용 유물은 무기류, 공현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습니다. 부장용은 유물의 형태가 완전한 것이 대부분이며, 죽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물로 죽은 사람이 소유했거나 그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들을 주검과 함께 무덤방에 넣어준 유물들입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성별, 신분, 머리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고인돌에서 출토된 부장유물

▶ 무기류(석기)

가장 많은 것은 무기류인 간돌검과 돌화살촉이 대표적입니다. 간돌검은 보통 1점씩 부장시키고 있으나, 돌화살촉은 여러 점씩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돌검은 요령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에서 극히 일부 출토되며, 한강 이남지역에서 부장품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돌화살촉은 부장품인 경우 간돌검과 같이 나오며, 보통 10점 이내로 배나 허리부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전남 보성 덕치리에서는 간돌검, 청동촉과 함께 29점이, 경남 거창 대야리에서는 간돌검과 함께 28점과 42점이 각각 한 무덤방 안에 부장된 예도 있습니다.



• 여수 적량동 돌검 출토 모습

▶ 무기류(청동기)

당시에 희귀하고 특수계층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동기는 비파형동검이 많으나 비파형청동창, 청동도끼와 청동촉, 한국식동검도 있습니다. 비파형동검은 옛 악기인 비파모양에서 붙여진 명칭인데, 중국 요령지역에서 집중 출토되어 출토된 지역이름을 따서 요령식동검으로도 불립니다. 고인돌에서 주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은 금강유역도 있지만 대부분 한반도 남해안지역, 특히 여수반도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세형동검은 경기 양평 상자포리와 전남 영암장천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바 있습니다.



• 여수 적량동 출토 비파형동검

▶ 공헌토기(貢獻土器)



• 고흥 한천 고인돌

공헌토기는 붉은간토기(紅陶)와 가지문토기(彩文土器)가 있습니다. 붉은간토기는 고온 점토를 이용해 빚은 후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광택이 나게 하여 구운 토기를 말합니다. 붉은 색을 띠고 있어 홍도, 적색마연토기, 단도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라고도 합니다. 형태는 목이 달린 둥근 바닥을 한 단지 모양으로 남한강유역과 금강, 낙동강, 보성강, 남해안지역 등 남한지역 고인돌에서만 출

토되며 주로 남해안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지문토기도 붉은간토기와 형태는 같지만 회백색을 띠고 있고, 어깨부근에 흑색 가지문이 있는 것으로 남해안지역 고인돌에서 주로 출토됩니다.



• 고흥 한천 고인돌 출토 가지문토기

▶ 장신구(裝身具)



• 여수 평여동 출토 옥

장신구류는 천하석제 곱은옥(曲玉), 환옥, 소옥과 벽옥제 대롱옥(管玉)이 있습니다. 곱은옥은 푸른바탕에 흰 반점이 있는 천하석제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한쪽 머리부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전남 여수 평여동에서는 한 무덤방안에서 환옥은 쌍으로, 소옥은 수 점 또는 수십 점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목걸이와 옷에 장식했던 장식품으로 보이며 마한에



• 여수 평여동 출토 옥

대한 기록 중 '마한인은 금, 은보다 옥을 더 귀히 여기고, 이를 귀나 목에 걸거나 옷에 장식하기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미 고인돌사회에서도 옥을 장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6. 어떤 유물이 출토될까

무덤방 주위나 묘역의 의례용 유물



• 영암 청호-삼호간 고인돌



• 의례용 유물 출토당시 모습(돌갈)



• 의례용 유물(돌갈)

죽음에 따른 제사향연과 관련

의례용 유물은 무덤방 주위나 묘역시설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죽은 사람에 애도하는 의미의 장송용(葬送用)이나 죽음에 따른 제사 향연과 관련된 제의용(祭儀用), 고인돌 축조에 따른 생활용 유물들이 있습니다. 장송용 유물은 무덤방 주위에 간돌검을 여러 조각으로 깨서 포개 놓은 경우나, 무덤방 옆이나 뚜껑들 사이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제의용은 제의를 지낸 후 일부러 깨서 주위에 뿌린 석기나 토기편이 있고, 생활용은 고인돌 축조시에 사용했던 유물로 솥돌이나 공구용 석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례용 유물들은 대부분 파손된 것들로 깨진 파편입니다. 그리고 형태상 완전하지만 일부러 깨서 넣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 파손품은 죽음과 관련된 파의식의 소산물로 보기도 합니다.

07. 왜 유물을 넣었을까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존경



• 순천 우산리 내우 고인돌

유물을 왜 죽은이의 곁에 부장하였을까? 무덤이라는 것이 죽음과 관련되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존경 등의 표시로 나타난 결과물로 당시의 내세관이나 현세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기류는 현세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과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의 상징물과 사회적 지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수 오림동 고인돌 덮개돌에 간돌검을 새겨 놓고 이를 향해 기원하는 인물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인들의 부장품으로 간돌검 이외에 붉은간토기가 있습니다. 이 토기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도록 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당시의 내세관에서 보면 죽은 사람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들의 무덤방에 안치된 주검의 위나 아래에 황토흙을 뿌린 경우가 있고, 붉은 돌을 무덤방 옆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붉은색은 내세에서 재생과 부활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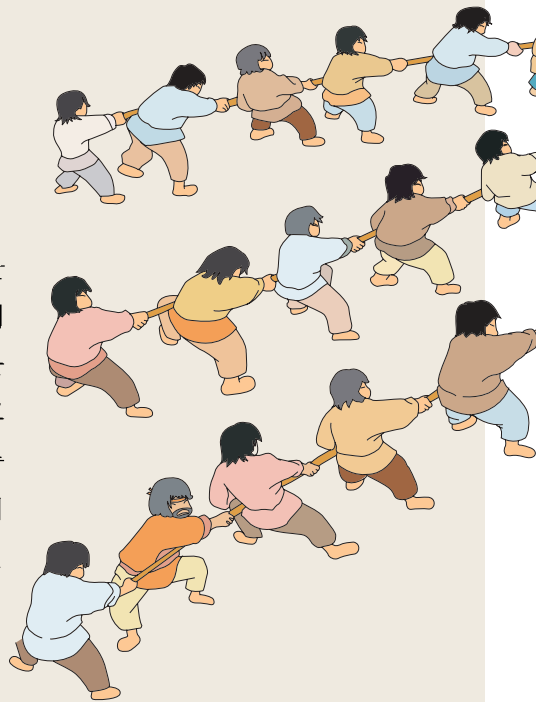


• 붉은간토기

08.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도의 기술, 많은 시간과 인원 필요

고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덮개돌입니다. 고인돌 축조 과정에서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의 받침돌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데, 기반식 고인돌은 거대한 덮개돌을 고인돌 축조 장소로 옮기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 **고인돌 세울 장소 마련하기** 일정한 장소를 택하여 땅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자리 선정은 주변의 다른 집단의 양해와 동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덮개돌 구하기** 고인돌 축조에 필요한 덮개돌은 산 인근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된 석

재를 다듬어서 사용하거나 암벽에서 덮개돌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암벽의 절리를 이용하거나 알맞은 크기의 구멍을 내어 썩거나 지렛대를 이용해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석공과 같은 전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인돌 덮개돌 이동 모습〉

● **덮개돌 운반하기(옮기기)** 덮개돌을 옮기는 데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해진 덮개돌을 산에서 굴리기도 하겠지만 무덤까지 옮기는 데는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덮개돌을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밑에 통나무 레일을 깔고 그 위에 가로질러 통나무를 올린 다음 밧줄로 묶은 덮개돌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 옮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Y자 형태의 나무썰매나 추운 지역에서는 얼음 위나 빙판을 이용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덮개돌은 목도식이, 가까운 거

리에는 지렛대식이나 목도식이, 먼거리는 끌기식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무덤방 만들기** 먼저 묘광(무덤움)을 파고 그 안에 주검을 안치하는 무덤방을 만들었는데 주로 판돌이나 깎돌을 이용해 네모꼴로 세우거나 쌓아 만들었습니다. 무덤방을 만들 때 간돌검이나 붉은간토기를 장송용으로 넣어주기도 하며, 주검 곁에는 무기류나 장신구류, 공헌토기를 부장하기도 합니다.

고인돌 축조 추정도



1. 구덩이를 파고 받침돌을 세운다



2. 받침돌을 세운 후 흙으로 채운다



3. 덮개돌을 올린 후 흙을 파낸다



4. 고인돌을 완성하고 제사를 지낸다

● **받침돌과 묘역 설치하기** 무덤방이 만들어지면 주위에 받침돌을 세우고 납작한 돌을 깔아 묘역을 구획합니다. 그 다음 덮개돌을 끌어올리기 쉽도록 흙으로 경사지게 쌓아 올립니다.

● **덮개돌 올리기** 고인돌 축조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으로 받침돌 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확하게 올리는데 고도의 토목건축학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반되어 온 덮개돌은 경사지게 쌓은 흙 위로 끌어올린 후 흙을 제거하였다고 추정됩니다.

● **제사지내기** 고인돌 축조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또는 동원된 사람을 위한 향연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묘역 주위에 깨어진 토기나 석기편들이 발견된 것은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이와 같은 고인돌 축조는 동일한 혈연집단 뿐만 아니라 이웃 혈연의 인력까지 동원해야 가능한 공동체집단의 의례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의 고인돌을 축조하려면 무덤방을 만든 사람, 운반로를 만드는 사람, 덮개돌을 끄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 등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공동체사회였습니다.

09. 축조 규모는 어떠했을까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 정도

고인돌 덮개돌을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은 실험고고학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강암의 무게는 1m³가 2.3~2.8톤으로 2.5톤 내외입니다. 하지만 고인돌의 크기와 실제 무게는 석질과 형태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고인돌을 옮길 당시 실제 무게는 대개 1.8~2.0톤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1톤의 돌을 1마일(1.6km) 옮기는데 16~20명이 필요하며, 32톤의 큰 돌을 등근 통나무와 밧줄로 옮기는데 200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의 실험은 9.8톤을 85명이 동원되어 4시간 동안 70m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한 사람이 120~160kg을 끌 수 있으며, 이 외에 동원된 사람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 고인돌 덮개돌 이동 모습

이와 같이 고인돌의 운반과 축조에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는데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 정도입니다. 고인돌 축조에 동원된 사람은 한 가족에서 1~2명이라고 할 때, 5인 가족으로 보면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의 인구수를 가진 집단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의 동원은 당시의 고인돌사회에서 하나의 거족적인 행사였을 것입니다.

10. 무덤 기능만 있었을까

무덤과 제단 묘표석으로 사용

청동기시대의 묘제 중 돌널무덤, 움무덤, 독무덤은 무덤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나 고인돌은 무덤 이외의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인돌의 기능 문제에 있어 고인돌에 나타난 덮개돌 형태와 하부구조, 입지와 군집 내에서의 위치로 보아 다음 세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무덤으로 사용된 고인돌(정흥 갈두 다 고인돌)

고인돌은 무덤으로 사용된 것이다

고인돌이 무덤이란 것은 19세기 말부터 제기되었으나 이후 충북 제천 황석리 13호에서 완전한 사람뼈가 발견되어 보고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인돌 무덤방의 규모가 무덤으로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무덤방의 길이와 폭이 다양하여 퍼묻기, 굽혀묻기, 두벌묻기, 화장이라는 장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무덤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로는 첫째, 고인돌이 한 곳에 떼를 지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무덤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인 사람뼈가 발견된다는 점, 셋째, 무덤 축조 과정에 묻은 꺼묻거리(副葬品)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제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고인돌을 축조하던 사회에서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거대한 덮개돌을 가진 고인돌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거족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 많은 사람의 동원을 필요로 하며 협동과 단결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결속된 여러 집단들의 공공집회 또는 타 집단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건조물로서 제단의 의미를 가진 고인돌이 건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제단으로 사용된 고인돌(화순 관청비위 고인돌군)

묘표석으로 사용된 것이다.

묘표석은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또는 묘역 조성 집단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리고 단순히 묘역임을 표시하는 것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고인돌군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제단고인돌과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집의 중앙이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앞보다 작은 규모이거나 소형으로 그 자체는 무덤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됩니다.



• 묘표석으로 사용된 고인돌(여수 월내동 상촌 고인돌)

11. 지배자들만 고인돌에 묻혔을까

특정한 계급만의 무덤으로 보기 어렵다



• 순천 우산리 내무 고인돌

고인돌에 묻힌 사람의 신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묻힌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이 지역에 따라 형태나 밀집도가 다르고, 무덤방의 균집성이나 형태에 있어 다양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인돌에 묻힌 주인공은 고인돌이 오랜 시기동안 축조되어 왔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묻힌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력한 지배자가 빨리 출현한 곳도 있고, 늦게 출현한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고인돌의 균집에 따른 무덤방의 구조나 배치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만의 무덤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에 묻힌 사람의 신분은 족장(族長)과 같은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설, 지배자와 그 가족의 무덤이라는 설, 혈연 공동체 집단의 공동무덤이라는 설,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무덤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12. 고인돌에서 발견된 뼈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례풍습, 신앙형태 등 추정 가능



• 창원 덕천리 고인돌



• 제천 황석리 고인돌 출토 인골



• 제천 황석리 고인돌 출토 목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유적에서 사람뼈(人骨)가 출토되고 있어 대부분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을 띠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질인 사람뼈가 부식되어 흔적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인돌에서 사람뼈가 출토된 예는 충북 제천 황석리, 강원 춘천 중도, 대구 달성 진천동, 경남 진주 대평리 등 몇 예가 알려져 있지만, 중국 길림지역과 북한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뼈가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뼈 출토로 보아 고인돌 축조 당시 묻기방법(葬法), 머리방향(頭向), 껌문거리(副葬品)가 놓인 위치를 통해 장례풍습을 살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사상, 신앙적인 측면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사람뼈로 보아 하나의 무덤방에 한 사람만 묻은 것이 보통이나 탁자식의 경우 한쪽면의 개폐가 용이한 문돌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구의 시신을 함께 묻는 복장제의 가능성을 보



• 가야 여자 복방계(조용진 교수 복원-고창고인돌박물관)



• 2만년 전 만달인(조용진 교수 복원-고창고인돌박물관)

여주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덕리 고인돌의 예처럼 무덤방 내부에 3~4개의 칸막이된 공간에 사람뼈가 흩어져 있는 특수한 예도 있습니다.

사람뼈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충북 제천 황석리의 두 무덤방에서 각각 1구씩의 사람뼈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사람뼈는 바로피묻기한 상태로 성인남자로 판명되었고, 키는 174cm와 145~150cm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간돌검 또는 곱은옥과 대롱옥이 부장되어 있었으며, 나이는 대개 20~30세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방에서 출토된 곱은옥은 머리쪽에서 쌍으로 출토되고 있어 귀걸이를 장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74cm인 사람뼈를 복원하였을 때 짱구머리를 하고 있으며, 코가 크고 광대뼈가 나온 형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단두형인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장두형으로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천년 경 부터 유럽에서 축조 시작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

고인돌은 언제부터 축조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궁금증입니다. 고인돌은 유럽에서 절대연대 측정을 기준으로 하여 대개 기원전 5,000~4,500년 경에 처음 시작하였다고 보고, 그 시기는 신석기시대에 해당됩니다.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농경의 시작과 관련하여 이와 함께 거석문화가 인근 서유럽지역으로 파급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서안에 있는 브리타니지역을 중심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인도가 기원전 10세기 전후, 일본이 기원전 4~5세기 경, 중국 기원전 11~12세기, 북한이 기원전 12세기 경에서 최근 기원전 40세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거석문화는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신석기시대부터 축조되었다고 하나, 지역에 따라 그 형태나 시기가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12세기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덴마크 고인돌



• 일본 히라아마 고인돌

14. 한국의 고인돌은 언제 출현했을까

기원전 12세기 무렵으로 추정

고인돌은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선사시대 산물

고인돌의 축조 연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의 연대와 형식간의 선후관계를 통해 추정하거나, 자연과학적인 연대측정 자료를 응용해 시기를 파악하는 추세입니다. 절대연대 자료에서 본 고인돌의 축조 연대는 기원전 12~9세기라는 공통된 측정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12세기경에는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중전의 기원전 12세기 설에서 단군릉 발견 이후 고인돌을 단군조선과 관련지어 절대연대에 의해 기원전 40세기 후반기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전자상자성공명법(ESR), 열형광법(TL), 핵분열흔적법(FIT) 등을 이용한 절대연대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소멸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물의 출토로 기원전 3~2세기설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인돌은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청동기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화순 벽송리 고인돌

15. 고인돌은 왜 사라졌을까

새로운 지배계층 등장과 선진문화 수용으로



• 화순 대신리 고인돌

사회 변화 따른 인력 동원 등 어려움

고인돌은 왜 소멸되었을까? 고인돌의 소멸은 당시 사회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인돌 후기의 사회는 지배계층의 등장과 외부로부터 선진문화의 수용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지배계층인 수장층의 등장은 기존의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한 지배집단간의 이합집산에 의해 급격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농경지 확보를 위한 전쟁에서 얻어진 소산물로 사람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집단안의 사람들간에 지배와 피지배층으로 다양한 계층이 분화되면서 권력의 중앙 집중화가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정복 전쟁이 수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고인돌보다는 봉분이 있는 나무널무덤이 등장하게 됩니다.



• 해남 방산리 고인돌

이 무덤에서는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으며 청동제 무기로 소속 집단을 강제적으로 제압하거나 의기류로 집단의 모든 의식 행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즉 정치와 제사를 관장하는 제정일치 사회의 최고의 지배자임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고인돌과는 다른 무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의 수용입니다. 선진문화는 철기문화입니다. 고인돌이 축조되는 시기의 청동기는 무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과장되거나 커져서 의기화되는 반면에 철기는 무기보다는 농경도구 등 실생활 용구들을 많이 제작하게 됩니다. 이 철제 농경도구는 석기로 하던 작업량 보다는 3~4배 가량의 농물을 올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농경도구를 이용한 농경지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고인돌 축조는 낭비이고 소모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고인돌 축조에 동원된 인력은 생산활동에 투입되었고, 무덤의 양식도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나무널무덤이나 움무덤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IV

고인돌인의 삶



고인돌을 만들었던 청동기시대
고인돌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고유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자

배산임수 지역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다



• 울산 검단리 마을



• 화순 내평리 원형 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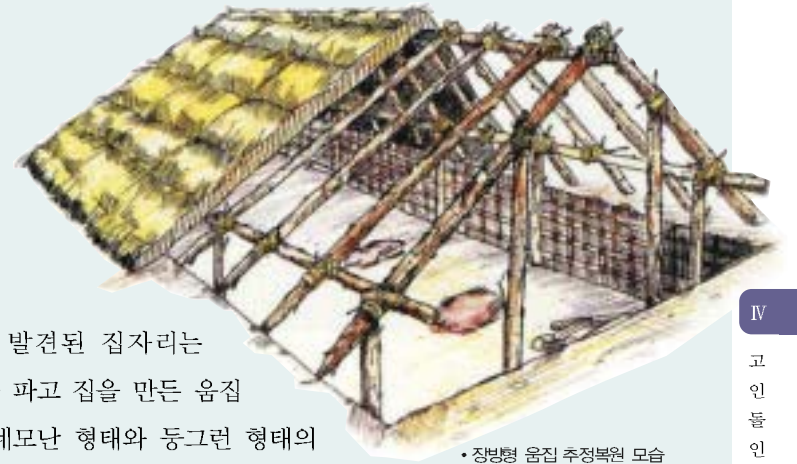


•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장방형 움집

땅을 파고 집을 지은 움집에서 더위와 추위 이기다

고인돌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움집(竪穴住居)이 보편적인 형태로 대개 열 집 안팎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그 주위로는 마을의 경계와 방어를 위한 도랑을 파거나 나무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고인돌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곳은 낮은 언덕이나 강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점차로 낮은 언덕의 편평한 곳에 대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2~4채의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았으나, 갈수록 낮은 구릉이나 강변의 충적지대로 옮겨가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많게는 100여 채의 집들이 함께 모여 사는 대규모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 장방형 움집 추정복원 모습

마을에서 발견된 집자리는 대부분 땅을 파고 집을 만든 움집의 형태로 네모난 형태와 둥그런 형태의 집자리가 발견됩니다. 네모난 형태의 집자리는 한반도에서 이른 시기에 등장하여 청동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되며, 중부지방의 서울 역삼동, 하남 미사리, 천안 백석동, 보령 관산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보통 혈연관계가 있는 여러 세대의 구성원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는 달리 남부지방에서는 중기로 가면서 점차로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확대가족이 분화하여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동일세대의 가족이 한 가옥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둥그런 모양의 집자리는 송국리형 집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집자리 내부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와 함께 기둥구멍이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충청, 전라, 경남지역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일본 큐슈지방에서도 확인됩니다. 집자리 내부에 배치된 타원형 구덩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석기 또는 옥기를 제작하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되고, 집자리 내부에 화덕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야외취사를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옥외활동에 필요한 도구는 출입구 가까이에 두고, 토기 등 취사도구들은 화덕자리 근처에 놓여진 것을 보면 움집 내부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로 안정된 식량 확보

부족한 식량 보충 위한 수렵, 어로생활
쌀밥보다는 조, 보리, 수수밥이 주식

고인돌 사람들은 안정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경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식재료는 수렵과 어로, 채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석기시대 이후로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나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고랑과 이랑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조, 기장, 수수와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지형적인 조건을 그대로 이용한 논농사가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밭농사로 얻어진 수확물은 쌀, 밀, 보리, 기장, 조, 콩, 들깨 등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밭 유적은 대구 동천동, 동호동, 진주 대평리, 진안 여의곡 유적 등이 있습니다.

청동기시대 논 유적인 울산 무거동과 논산 마전리유적은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3m 내외의 네모모양으로 지금의 논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논바닥, 논둑, 수로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과 논 사이에는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인돌 사람들은 물을 대기 쉽고 비옥한 저습지를 이용해 벼를 재배하였던 것입니다.



• 논산 마전리 논유적



• 논산 마전리 논유적 복원모습 (호서지역의 청동문화 2007)

돌칼이나 돌낫으로 수확을 서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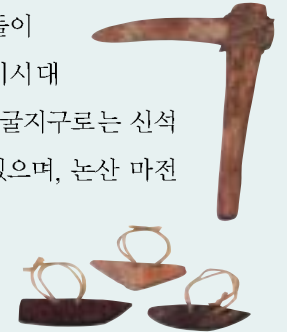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농경도구로는 곡식의 이삭을 따는 돌이나 패각으로 만든 칼과 낫이 있는데 이들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기는데 사용하는 굴지구로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팽이와 돌삽, 보습이 있으며, 논산 마전리 출토 목제 농공구의 예로 보아 목제품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따는 수확용구로 반

달모양인 것이 많으나, 함경도 지방에서는 네모형

이, 충청도, 전라도 해안지방에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곡물의 수확도구로 사용되다가 청동기시대 중기에 삼각형의 돌칼이 발생하면서 벼농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달돌칼은 실생활용은 물론 의례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무덤 주위에 부수어져서 출토된 예는 단순한 사용에 의한 폐기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부수어 매납했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돌낫(石鎌)은 곡물의 수확을 위한 도구로 30cm에 가까운 대형에서부터 15cm 전후의 소형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곡식이나 잡초를 베거나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 돌칼과 돌낫 복원 모습



• 곡식 따증 모습(선사체험)



• 곡식 수확 모습(고창고인돌박물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다



• 돌화살촉을 이용한 사냥모습(선사체험)

고인돌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냥의 필요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 논농사와 밭농사로 얻어진 곡물의 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로 곡물의 양이 많으면 저장하여 다음해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이었고 실제로는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물과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을 통하여 먹을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사냥은 식량과 가죽을 얻기 위한 선사인의 중요한 생업활동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석기시대에는 속도가 느린 대형동물이 주 사냥감이었지만 신석기시대에는 날쌔 소형동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의 직접 대상물을 향해 찌르는 창보다는 돌화살촉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과 도끼가 근거리용 수렵도구라면 활과 화살은 원거리용 수렵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적에서 발견되는 돌화살촉의 등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 어로생활 추정 복원도

로운 발명품이었습니다.

고인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은 사냥감은 무엇일까? 고고학적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뼈를 보면 사슴, 노루, 멧돼지, 돼지, 산토끼 등과 텃새, 철새 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슴과 멧돼지는 그 수량이 많아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던 육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몸집이 크고 간편한 방법으로 사냥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 사냥으로 잡은 사슴(고창고인돌박물관)



• 돌칼로 고기 자르기(선사체험)

고인돌인의 삶 - 그릇 이야기

풍년을 담아내는 그릇, 토기

민무늬토기 등 다양한 모양의 토기사용

그릇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 물건입니다. 물론 나무로 만든 그릇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쇠로 만든 그릇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가 가장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토기에 음식물을 익혀 먹음으로써 소화흡수가 잘 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돌시대에 만들어 썼던 토기를 문양이 없어 민무늬토기라 합니다. 이



• 토기 제작 모습(선사체험)



• 토기 제작 모습(고창고인돌박물관)

토기는 굽은 모래나 곱돌가루를 섞은 진흙으로 빚어 한데가마(露天窯)에서 구운 납작토기로, 대개 적갈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주워 모은 나무열매나 농사를 지어 생산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용 항아리,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 항아리, 음식물을 요리하기 위한 그릇, 조리된 음식을 먹기 위한 식기용 그릇 그리고 무덤에 부장하기 위한 토기 등이 특별히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쓰임새에 따른 토기 모양



• 저장용 그릇

저장(貯藏)▶ 밭과 논에서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은 일상용으로 먹기 위해 저장하여 두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특별히 종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생산된 곡물을 저장할 필요에 따라 저장용 토기의 형태가 변형, 발전하였고, 동물의 침입을 막거나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같은 별도의 저장시설도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천연의 저장시설인 지하식 구멍이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리(調理)▶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그릇은 높이 20cm 내외의 작은 항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릇의 외면의 흔적을 관찰하면 주위에 불에 탄 흔적들이 관찰되는데, 노지에서의 조리방법은 안정적으로 놓은 후 그 주위에 불을 피워 끓이는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조리용 그릇



• 식기용 그릇

식사(食事)▶ 밭에서 잡곡 재배, 논에서 쌀 재배, 동물사냥, 견과류 채집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는 곡류, 어패류, 푸성귀, 육류, 도토리 등 현재의 일반적인 먹거리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식량공급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 위한 식사용의 소형 그릇을 제작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5~11cm 정도이고, 대접, 접시, 보시기 등 용도에 따른 형태의 분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돌을 깨뜨리고 갈아서 원하는 모양 제작



• 석기 제작 모습(고창고인돌박물관)

고인돌시대에는 구리와 주석, 납과 같은 새로운 소재로 도구를 만드는 금속문화의 도입이 있기도 한 시기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여전히 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동기는 제작의 어려움, 재료의 희귀성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배자의 꾸미개 또는 의기로 만들어진 반면, 일상도구는 아직 석기 또는 목기가 주로 사용되면서, 신석기시대에 비해 목적에 맞게 크기와 형태가 세분화되며 전문장인에 의한 전문화와 돌도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석기의 제작은 먼저 적당한 크기로 석재를 쪼갠 뒤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부터 갈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1차 조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숫돌을 이용하여 마연하게 됩니다. 숫돌인 지석은 마제석기의 형태를 잡거나 도구의 날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재의 재료로는 화강암, 점판암, 유문암, 응회암, 안산암, 혈암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장신구에는 천하석재와 벽옥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 돌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공구류

돌도구의 종류

- 나무의 벌목이나 가공-돌도끼, 돌끌, 돌대패



- 농사에 필요한 농경구-돌칼, 돌낫, 갈돌과 갈판



- 사냥에 필요한 수렵구-돌창, 돌화살촉



- 무기와 장신구-간돌검, 옥



첨단기술이 적용된 청동기



• 완성된 청동기

돌로 만든 도구만을 사용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리와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 비파형동검이나 청동창, 청동화살촉, 거울 등의 청동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는 채광-정련-용변제작-주조라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며, 재료의 희귀성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실용품이라기보다는 유력자만이 지닐 수 있었던 특수품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 한국의 청동기는 무기가 대부분이고, 공구, 의기, 꾸미개, 차마구 등의 기종이 있는데, 무늬로서는 기하학무늬가 주로 장식되었습니다. 무기로는 검(劍), 투겁창, 격창, 화살촉 등이 있습니다.



• 거꾸집 제작



• 거꾸집에 주물을 부음

마음을 표현한 바위그림

바위는 영험함과 생명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바위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여러가지 문양들을 일컬어 암각화라 하는데, 암각화란 단단한 돌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금속제의 도구를 사용하여 쪼거나 긁기 또는 갈기의 기법으로 바위의 표면에 그림이나 문양을 새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바위에 새긴 이유는 돌(石)은 생명의 원천이며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수 오림동 암각화에는 인물상 2인, 간돌검, 물상 등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검(劍)은 생전에 자신을 지켜주고 권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로 내세에서도 죽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암각화를 새긴 것은 죽은 사람 뿐만아니라 무덤 자체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우리를 지켜주소서(여수 오림동 암각화)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돌 박물관

고창고인돌박물관



• 고창고인돌박물관 전경



• 고창고인돌박물관 내부 모습

청동기유물, 고인돌문화 한 눈에 관람 가능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76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고창IC를 빠져나오면 5분 이내 거리에 고인돌형상의 웅장한 3층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총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하여 약 57,988㎡의 부지에 연면적 약 3962.8㎡의 규모로 건립된 전국 유일의 고창고인돌박물관입니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 및 생활상, 그리고 세계의 고인돌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돌 전문박물관으로 크게 내부전시와 외부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1층 기획전시실과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상설전시실로 청동기인의 생활상과 고인돌에 관한 학술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3층은 체험전시실로 체험물과 움집세트, 외부 조망 망원경이 설치되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외부는 선사마을, 체험마당, 전시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사마을은 고인돌을 축조했을 당시의 마을을 복원하여 고인돌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전시했으며, 체험마당은 고인돌 덮개돌 끌기 체험을, 전시마당은 돌널무덤, 움무덤, 돌널무덤 등 묘제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고인돌박물관답게 고창고인돌유적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인 화순·강화 고인돌유적에 대한 자료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의 거석문화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체험학습 및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인간이 태어나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죽음으로써 고인돌에 묻히는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역사의 숨결이 곁들여 있는 살아있는 삶의 공간이라는 진리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속 여행지입니다.

<http://www.gcdolmen.go.kr>

☎ 063-560-2577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

옛 길 따라 밀집분포한 상금리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373



• 상금리 고인돌 전경



• 상금리 기반식 고인돌



• 상금리 고인돌 덮개돌 채석광(採石坑)

상금리는 대산면에서 동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나와 북쪽은 성송면과 남쪽은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의 낮은 구릉과 접하고 있습니다. 상금리 마을 정자나무 주변에서부터 장성 삼계면으로 넘어가는 표고 225m의 가리재 정상까지 작은 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약 2.7km를 따라 가리재 정상까지 약 205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법성포

에서 장성 내륙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로, 고인돌이 옛길을 따라 분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덮개돌(上石)의 크기는 장축이 2~400cm 범위에 속하는 중형의 것들이 대부분이며, 600cm를 보이는 큰 덮개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받침돌(支石)이 확인된 것은 모두 73기, 괴석형 받침돌을 하고 있는 것은 32기이며, 주형 받침돌을 하고 있는 것은 18기입니다. 따라서 상금리 고인돌은 기반식(바둑판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탁자식도 8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형탁자식 중에는 허부가 매물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탁자식(卓子式)으로 판단되는 것도 있고 변형탁자식과 기반식(基盤式)이 결합된 예도 있습니다. 또한 무덤방 위에 바로 덮개돌이 놓인 개석식

(蓋石式)도 수십 기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금리 고인돌은 독특한 분포적 특징과 함께 다양한 형식이 확인되고 있어서 고창읍 죽림리의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과 함께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고인돌유적입니다.

한국 최대로 알려진 운곡리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산 기-3

운곡리 고인돌은 아산면에 위치한 선운레이크골프클럽에서 734번 지방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내려오면 운곡마을로 향하는 소로가 나오며, 이 길을 따라 운곡제를 지나면 운곡서원이 나옵니다. 고인돌은 운곡서원 주변으로 4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운곡지석묘라는 표시석이 세워진 운곡리 고인돌은 길이 560cm, 폭 450cm, 높이 400cm의 덮개돌로 300톤 정도의 거대한 무게를 가진 고인돌입니다. 아산면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고인돌인데, 원래는 우거진 소나무 숲 사이에 묻혀 있어 받침돌이 없었던 거대한 바위로 생각할 수 있는 고인돌입니다. 덮개돌 아래에는 길이 120cm, 폭 80cm 높이 43cm의 받침돌이 남쪽에 2개 받치고 있으며 북쪽의 받침돌은 땅 속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발굴된 운곡리 B-1호 고인돌



• 운곡리 고인돌 전경

• 운곡리 고인돌 받침돌 모습

제단으로 사용된 산수리 고인돌



• 구릉에 단독으로 존재한 산수리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544

산수리 고인돌은 산수마을로 가는 진입로에서 방축제를 지나 인접한 구릉에 기반석 고인돌 1기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600×폭 320×두께 130cm이고 받침돌의 형태는 기둥모양으로 고창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입니다. 5개의 주형지석으로 덮개돌을 받치고 있으면서 높지 않은 저평한 구릉에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무덤으로서 보다는 제사를 지냈던 제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산수리 고인돌 받침돌 모습



• 산수리 고인돌 근경

역사시대 문화유적

마한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덕리 고분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 47

봉덕리 고분군은 유적의 남쪽에 위치한 태봉(해발 110.4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정상부에서 말단부에 이르며 만동마을 서쪽에 2기, 후동마을 북쪽에 2기 등 4기의 대형분구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구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장방형이며 규모는 44~46m 내외, 단 폭 29m, 높이 9m 내외입니다.

고창군에서는 봉덕고분에 대한 정비복원을 계획하고 1호분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분구 정상에서 5기의 석축분이 발견되었고 주변에서 옹관묘 2기, 석곽 9기가 확인되었습니다. 4호 횡혈식 석실분에서 금동식, 금제이식, 죽엽형장식, 중국제 청자반구호, 대도, 도자, 마구류, 철기류, 성시구 등의 유물 등이 출토되어, 마한의 중심세력중의 하나인 '모로비리국(牟婁卑離國)'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의 축조 시기는 석축묘의 구조나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초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봉덕리 고분군 전경

모양성으로 불리는 고창읍성과 백제의 서산산성

고창읍성



• 고창읍성 전경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1453代)에 왜침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고창의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으며, 나주진관(羅州鎭管) 입암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의 규모는 성벽 둘레 1,684m, 높이 4~6m, 면적 16만 5,858㎡이며, 등양루(동문), 진서루(서문), 공북루(북문) 등의 누각과 6곳의 치(雉), 3개소의 웅성(甕城), 수구문(水口門) 2곳 등이 남아 있습니다.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백제시대 때 고창 지역이 '모량부리(毛良夫里)'라 불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여자들에 의해 축성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담성놀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을 전후하여 모양성제가 열리며 한해의 재앙이나 질병을 가시게 기원하는 성밧기놀이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 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산산성



• 서산산성(실선 부분이 산성)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1

서산산성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 부근 석치동 마을 뒷산 성틀봉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쪽에 하천을 끼고 해발 20m 이하의 낮은 지대를 굽어보는 곳에 축성되었습니다.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테괴식 석성으로, 남쪽은 비교적 작은 돌로 쌓은 반면에 북쪽은 이보다 큰 돌로 쌓았습니다. 성벽은 남쪽 266m, 동쪽 142m, 북쪽 322m 정도로 전체 둘레는 730m에 이르며, 높이는 약 3m 내외입니다.

현재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창읍성은 부여자들이 성을 쌓고 서산산성은 남자들이 성을 쌓기로 하여 시험을 하였는데 여자들이 쌓은 고창읍성이 이겼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솔산에 자리한 선운사(禪雲寺)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 선운사 전경

선운사는 일명 도솔산(兜率山)이라고도 부르는 선운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77년(백제 위덕왕 24)에 고승 검단(檢旦, 黔丹)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그 후 1364년에 효종이 중수하고, 1472년(성종 3)부터 10여 년에 걸쳐 극유(克乳)가 중창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운사에서는 특히 걸출한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화엄학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설파 상언(雪坡尙彦) 스님과 선문(禪門)의 중흥주로 추앙받는 백파 공선(白坡巨璇) 스님을 비롯하여, 구한말의 청정율사 환응 탄영(幻應坦泳) 스님, 근대불교의 선구자 박한영(朴漢永) 스님 등이 선운사에서 수행하면서 당대의 불교를 이끌었습니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보전과 관음전·영산전·팔상전·명부전·산신각·만세루·천왕문이 있고, 대웅보전 앞에는 6층 석탑과 괘불대·당간지주·석주 등이 있으며, 사내 암자로는 참당암(檀堂庵)·도솔암(兜率庵)·동운암(東雲庵)·석상암(石上庵) 등 네 곳이 있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은 보물 제290호로 지정되어 있고, 영산전목조삼존불상·육층석탑·범종·만세루·백파율사비 등이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사내에 있는 선운사성보 박물관에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279호)을 비롯한 고려불상, 조선시대 탕화, 『석씨원류』·『선운사사적기』 등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경내의 동백나무숲·장사송·송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생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5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장군의 생가터로 당촌마을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봉준은 1856년 1월 10일(음력 1855년 12월 3일) 당촌마을(고창 죽림리)에서 서당 훈장을 하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 13세 무렵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흔히 녹두(綠豆)라 불렸고, 훗날 녹두장군의 별명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 전봉준 생가 전경

녹두장군 전봉준은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저수지) 축조 이유로 농민들의 금전과 곡식을 강탈하자, 농민대표와 함께 바른 정치를 해주도록 호소하였으나 거부당하여 1894년 1월 농민과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부패한 관리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후 전주에 입성하여 외침으로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부패한 관리 처벌, 노비 해방 등 폐정개혁안 12개 조목을 실천하기로 약속받고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의 손길을 뻗치자 12만 명의 군사를 지휘하여 손병희의 10만 군사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중·남부 전 지역과 함경남도, 평안남도까지 세력을 폈으나 공주, 금주 싸움에서 패하고, 전봉준 장군은 순창으로 잠적, 재기를 꾀하다가 붙잡혀 1896년 3월 처형되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생가는 서당과 안채, 사랑채 등이 있었으나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현재는 안채 1동과 헛간 1동 등 모두 2동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고, 안채는 정면 2칸 측면 5칸의 초가지붕으로 전형적인 서민 가옥 형태입니다.

조선시대 읍성의 구조를 살필 수 있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



• 무장현 관아와 읍성 진무루(鎭茂樓) 전경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무송현과 장사현이 통합되면서 그 중간지점에 치소를 정하고 축조하였는데 현재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에 해당합니다. 축조 시기는 1471년으로 병마사 김저래(金著來)가 여러 고을의 승려와 장성 20,000명을 동원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축조하고, 공아관사(公衙官舍)를 세웠다고 무장읍지에 전하며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읍성은 길이 약 1.2km, 높이 약 1~2m, 폭은 상부 약 1~2m, 하부 약 3~5m의 장방형 평지성(平地城)입니다. 거의 완형(完形)에 가까운 남문(진무루(鎭茂樓))과 동문지(東門址)(웅성지(甕城址))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남아있는데 오직 남문 좌우측의 일부(약 230m)만이 훼손되어 없어졌습니다. 남문 주위에 석축이 남아 있고, 또 동문지의 토성단면 내부에 열석(列石)이 보이는데 이는 토성으로 개축하기 이전의 석성(石城)의 구조로 짐작됩니다. 이 외에 객사와 동헌, 성곽과 해자가 같이 남아 있고 향청(鄕廳)·연청(椽廳)·내아(內衙)와 성황당·사직단·여단 등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옛 읍성의 모습을 연구하고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1년 2월 사적 제3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무장현 관아와 읍성내 무장2차 전경

참고문헌

[고인돌 관련 서적]

- 이건무·조현중, 2000, 『선사유물과 유적』
- 이영문, 2001, 『고인돌이야기』 다지리
- 변광현, 2001,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 문화재청, 2002, 『한국의 세계유산』
- 이영문, 2002, 『한국지석묘사화연구』 학연문화사
-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연구』 주류성
- 이영문,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
- 이영문·신경숙, 2005, 『화순고인돌 사람들 이야기』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화순군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7, 『아시아거석문화와 고인돌』
- 우장문·김영청, 2008, 『세계유산 강화고인돌』 고인돌사랑회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고창고인돌 관련 보고서]

-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 전북대학교박물관, 1984, 『고창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전영래, 1992, 『고창 죽림리일대지석묘군지표조사보고서』, 고창군 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영래, 1993, 『고창 죽림리지석묘군발굴보고서』, 고창군 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고창군, 1995, 『고창고인돌유적-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
- 전주대학교박물관, 1999, 『고창지석묘군 상석채굴지 지표조사보고서』, 고창군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서해안 고속도로고창~군산간 건설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고창군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1, 『사적 391호 고창고인돌유적지표조사보고서』, 고창군
- 고창군,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창군 원광대마한백제연구소
- 원광대학교박물관, 2007, 『고창 죽림리 재해 고인돌 발굴조사 보고서』, 고창군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9, 『고창군의 지석묘』, 고창군

[고인돌 관련 홈페이지]

- 문화재청 www.chagok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 고창고인돌박물관 www.gcdolmen.go.kr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www.jdolmen.org
- 고인돌사랑회 www.jgindol.net

